

장성·담양군, 교류관광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양 지자체 관광업무협약 체결
지정 관광지 방문 인증시 혜택
7월부터 관외 거주자 대상 적용

전라남도 장성군과 담양군이 관광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각 지자체 관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대와 실질적인 소비를 유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23일 장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청사에서 김한중 장성군수와 정철원 담양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장성군·담양군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지자체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홍보·방문객 유치, '지역 연계 관광상품·프로그램 개발·관광 마케팅 추진', '지역축제 연계 프로그램 개발·교류행사 추진',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2025 장성 방문의 해' 프로젝트의 하나로 '솔솔한 장성 여행 장담할

게' 행사를 추진한다.

이웃한 담양 관광지 8곳중 1곳을 방문 후 장성군 내 지정된 음식점 또는 카페에서 3만원 이상 소비한 경우 장성역 여행 자플랫폼에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담양군의 지정관광지는 메타랜드, 한국대나무박물관, 가마골생태공원, 담양호 용마루길, 소쇄원, 한국가사문학관, 금성산성이다.

담양군 역시 '담장 넘어 우리 함께 여행 할까' 행사를 편성했다. 장성군 지정 관광지 8곳 중 1곳을 방문해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날 담양군 관내 식당 또는 카페에서 3만원 이상 소비한 후 영수증을 지참하면 1인 1회에 한해 담양군 관광정보센터에서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담양군의 지정관광지는 죽녹원, 메타랜드, 한국대나무박물관, 가마골생태공원, 담양호 용마루길, 소쇄원, 한국가사문학관, 금성산성이다.

양 지역 '여행·선물 증정' 행사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지난 20일 장성군청 상황실에서 정철원 담양군수(왼쪽)와 김한중 장성군수가 '관광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웃사촌 담양군과 함께 전남 관광의 매력을 높여 가겠으며, 더욱 즐겁고 풍성한 여행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협약은 두 지역의 관광 자원을 연결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

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간 상생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정철원 담양군수는 상호 우의를 상징하는 의미로 장성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장성=유봉현·담양=신재현 기자

'제3회 함평아카데미' 강연 개최
함평군, 7월4일 엑스포공원서

전라남도 함평군이 이금희 아나운서를 초청해 '제3회 함평아카데미' 강연을 개최한다. 함평군은 23일 제3회 함평아카데미 강연이 7월4일 오후 3시,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함평아카데미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 없이 군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강연에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한마디 말로 우리는'을 주제로 소통과 공감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강연에서 이금희 아나운서는 방송 현장과 대학 강단 등에서 다양한 시민들과 만나며 체득한 대화와 소통의 기술, 그리고 말 한마디의 힘에 대해 진솔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 아나운서는 KBS 공채 16기 출신으로, '아침마당', '인간극장', 'TV동화 행복한 세상'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유의 공감과 따뜻한 목소리로 시청자들과 소통해 왔으며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군민에게 유익한 강연을 제공하는 소통의 장이나 마찬가지다"며 "세대 간,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해지는 요즘 이번 강연이 군민들께 따뜻한 말의 힘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장성군, '동화나라 버베나축제'
28일 동화면 일원서 공연 등 다채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이 오는 28일 램프공원(남평리 236-1) 일원에서 '제2회 동화나라 버베나축제'를 연다.

23일 장성군에 따르면 동화면은 지난해부터 보랏빛 꽃이 피어나는 다년초 식물 '버베나'를 램프공원에 심고 소규모 마을축제를 개최해 왔다.

올해 축제에는 볼거리·즐길거리가 한층 풍성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난타, 라인댄스, 고고장구, 동화초등학교 오케스트라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팝페라, 변검, 퓨전양상불, 트로트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페이스 페인팅, 캘리그래피, 동화나라 테마의상 체험, 포토존, 방장산 휴양림과 연계한 손수건 염색, 꽃차 시음 등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된다.

소나무점터에서는 음악, 야생화 염색, 시 낭송 등 깊이 있는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숲속여가' 행사가 기다린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부분은 축제의 주인공인 '버베나'다. 개화 시기를 잘 맞춘 덕분에 일찍부터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동화면은 앞선 4월부터 면민, 사회단체 회원, 공무원 등 150여 명이 힘을 합해 버베나, 백일홍 등을 심으며 축제를 준비해 왔다. 물주기, 풀베기 등 축제장 관리도 동화면 청년회가 맡았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동화면을 대표하는 '동화나라 버베나축제'가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장성호 수변길, 죽령산, 백양사 등 장성의 명소도 함께 방문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추첨 행사
화순군, 최종 76세대 선정 완료

전라남도 화순군이 지난 21일 진행된 '2025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추첨 행사'를 통해 최종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다.

23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추첨 행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경찰의 입회하에 공개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전 접수를 마친 439명의 추첨자 중 411명이 참석해 청년 40호, 신혼부부 36호가 최종 입주자로 선정됐다.

이날 추첨식에서 청년 40호 중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26명·65%,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8명·20%, 그 외 지역은 6명·15%를 차지했다.

연령대로는 20대가 26명·65%, 30대가 11명·27.5%, 40대가 3명·7.5%였다.

신혼부부의 경우 36호 중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총 22명으로 61%를 차지했다.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11명으로 31%, 그 외 지역은 3명으로 8%를 차지했다.

연령대로는 20대가 14명·39%, 30대가 20명·55%를 차지한 반면 40대는 2명으로 6%에 그쳤다.

만원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자인 부영아파트는 중소형 위주의 실속 있는 평형 구성과 내부 리모델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이번 신청에도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을 입증했다.

무엇보다도 핵심 생활권인 광덕 택지에 위치해 입지 조건이 뛰어나고, 도보권 내에 초등학교가 3곳이나 있어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다는게 화순군의 설명이다.

이날 당첨된 최종 입주자는 7월2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후 14일 이내 화순군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및 입주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23일 화순군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신혼부부의 경우 남은 물량 24호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가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화순=김선중 기자



나주시가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치유 원예프로그램에 시민들이 참여해 허브 화분을 만들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치유 원예체험 프로그램

전라남도 나주시가 상반기에 운영한 '나주에서 휴일을' 치유 원예 체험 프로그램이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에는 22가족, 총 60명이 참여했으며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 식물을 가꾸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주시 '뷰티풀 농장'에서 진행된 체험은 허브 화분 만들기, 치유 농장 체험 등 원예 활동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흙을 만지고 향긋한 허브 향을 맡으며 오감을 자극하는 치유의 시간을 경험하며 가족 간 웃음과 대화를 나누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참여자 종합 만족도는 95%로 나타났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전 공공기관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일반 시민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구체적인 일정과 운영 내용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힐링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담양군문화재단, '담양에서 예술로 서로' 참여 예술인 모집

지역 예술인 홍보역량 지원

전라남도담양군문화재단이 '담양에서 예술로, 서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담양 예술인을 모집한다.

23일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로 2회째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예술인의 홍보역량을 지원하는 동시에 각 장르별 예술인 간 네트워크와 협업을 더욱 확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예술인 프로필 사진 및 영상 제작을 지원한다.

촬영은 스튜디오 및 개인 작업공간 등에서 진행되며 예술인의 활동 이력과 작품소개, 예술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터뷰 또한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공고문과 포스터에 첨부된 구글폼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를 통해 기획력, 활용 가능성, 참여 의지, 장르 다양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14명의 예술인을 선정한다.

지원 자격은 재단 예술인 DB 등록을

완료했거나 등록 예정인 예술인으로 DB 등록 자격과 절차는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예술인에게에는 프로필 제작지원과 함께 재단 누리집과 공식 SNS 채널에 예술인 프로필 사진과 영상이 등록되며 오리엔테이션 및 결과 공유회 등의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www.damyangc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양=신재현 기자